

나의 연적(戀敵)은 가로수?

(알코올성 질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에서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술꾼 남편이 엉뚱한 이유로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다. 거의 매일 만취되어서는 “너, 오늘 어떤 놈하고 놀아났느냐?”, “바른 대로 대면 살려 주겠다” 등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이 집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 하게 감시하고 옥죄는 경우도 있다.

의처증(편집증)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대단히 고통을 주는 난치의 병이다. 그런데, 의처증이 특히 습관적인 음주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알코올성 질투’ 또는 ‘알코올성 편집증’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환자는 원래 의심이 많고 남을 믿지 못 하며 남의 언행에서 숨은 동기를 캐려고 애를 쓰는 편집형 성격장애인 경우가 많다.

임상적으로는 그 정도가 다양하면서도 워낙 많기 때문에 딱히 일례를 꼬집어 내기가 마땅치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고지식한 성품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음주 경력이 있으며 성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져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54세 된 지방 공무원이 한사람 있었다. 그는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매사에 꼼꼼해서 좀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는 터라 윗사람으로부터의 신임이 적잖이 두터웠다.

그러던 그가 몇 년 전부터인가 부인의 정조(貞操)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십 여 년 전의 일이니 당시에는 호출기나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을 때인데도 그는 부인에게 그 당시 ‘잘 터진다는’ 외제 휴대전화를 사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곤 하였다.

그럴 즈음 그는 자신의 사무실 서랍 속에 소주병을 감추고 틈나는 대로 훌쩍훌쩍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손이 떨려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당연히 직장 내에서의 업무 능력은 떨어져 갔고, 또 이런 일들이 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가고 있었다.

그의 하루 일과는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전화통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으며, 부인과 통화 중 자주 언성을 높여 사무실 분위기를 불안하게 하곤 하는 것이었다. 없다는 ‘남자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끝에 부인을 때린 것만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들과 친지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끌려 오게 되었다. 그는 강마르고 볼품없는 ‘비아프라’형 체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번뜩거리며 살기(殺氣)를 내뿜고 있었다. 면담을 시작하자 바로 그 살기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일 분만 틈이 나도 딴 놈하고 그 짓을 하고 온다. 동네 사내놈들이 이 여자를 거쳐 가지 않은 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또 “어젯밤에 현장을 덮쳐서 도망가는 놈을 잡기는 잡았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본인의 말과는 달리 아들이 이야기해 준 그날 밤의 일은 이러했다.

밤늦게 갑자기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나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아버지가 대문 밖의 가로수를 향하여 ‘이놈 저놈’해 가며 “경찰서로 가자. 못 되 먹은 놈, 오늘은 네 놈을 놓치지 않는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놀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환자를 뜯어 말리자 환자는 오히려 “네놈들 때문에 또 놓치게 됐다. 다 한 패거리이다”라며 격노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한 알코올성 편집 상태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를 외간남자가 마누라에게 속삭이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어스름 달빛 아래의 가로수를 도망치는 정부(情夫)로 오인해 난투극을 벌이려고 하던 참이었다.

물론 그는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터무니없던 착각이 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크게 반성하긴 했지만, 그 동안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었던 커다란 상처는 오래도록 그들을 아프게 하였다.

어렸을 때에 들은 ‘빛자루 귀신’이야기가 생각났다. 밤새 귀신과 격투를 벌여 그 귀신을 꿰꿎이 묶어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빛자루로 변해 있더라는.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우리의 민족성에 비추어 격투를 벌이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그 조상님도 혹시 심한 술꾼이 아니었던가.